韓國心理學會誌 : 社會問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1999, Vol. 5, No. 2, 141~155

한국 대학생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 탐색

최상진[1] · 박희랑[1] · 박무익[2]

[1]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2]한국갤럽조사연구소

지금까지의 투표행동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선택에서 사용되는 합리성 인지모델과 이 모델에 따른 태도 측정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 모델은 사물에 대한 선호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모델로서 감정과 자아가 관여되는 인물 평가, 특히 심리적 관여가 높은 투표행동의 분석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치되는 모델로서 정리(情理)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에 따른 15대 대통령선거 투표행위 성향과 이에 관여되는 심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적용을 통해 한국인의 투표 행동에 관여되는 한국적 개념을 찾아내고 정리(情理)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이 모델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적 구성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지난번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일반 사회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형태의 談論 樣式에 의해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하나의 담론 양식은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깊은 감정적 관여 없이 탈관여적으로 후보자들을 평하는 형태의 객관적 담론 양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담론 양식은 한국의 축구평론가가 독일 프로축구팀들의 축구경기를 해설할 때 나타나는 담론양식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전평을 하는 이성적, 사실 중심적 평론양식이다.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담론 양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나, 자기 집안, 자기 친구 일인 것처럼' 당사자의 입장에서 특정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비하하는 자아관여적 후보 평가 형태의 담론 양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담론 양식은 한일 축구에 대한 해설에서 한국의 축구 평론가가 애국심, 국민감정 등과 같은 '우리편' 의식과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한일 축구를 해설하는 방식에 해당한다(최상진, 1997a; Choi, 1998).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평론 양식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화에서도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 담론 참여자들간에 지지후보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거나, 서로 동일 인물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동일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

지(共知)하고 이루어지는 소위 '우리편끼리'의 담론(최상진, 1990)에서는 한일 축구해설식 당사자적, 자아관여적 담론 양식이 두드러진다. 반면 서로 지지후보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지지후보가 특별히 없는 소위 무선호, 무소속, 무관여 집단의 담론에서는 독일 축구 해설 형태의 제3자적, 자아 비관여적 담론 양식이 두드러진다. 보통 제3자적 담론양식은 사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이성적 사리담론 양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최상진, 1997a; Choi, 1998).

김대중 후보 비자금 문제를 감정이나 편 의식의 개입없이 법리에 준해 논하는 법리적 논술 방식은 사리논리(事理論理)적 담론의 양식에 해당된다. 반면 당사자적 담론 양식은 자신의 감정관계나 연고(緣故)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된 사람, 또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대화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정리논리(情理論理)' 담론 양식이라 칭할 수 있다. '아무개는 무조건 싫어' 또는 '아무개가 안됐으니 아무개를 찍어 주어야 돼' 등과 같은 말은 정리논리 담론 양식에 속하는 말이다(최상진, 유승엽, 1996).

대통령 선거에서 인정이나 연고에 끌리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후보를 찍어야한다는 언론의 논조는 정리논리가 아닌 사리논리에 따른 판단이 옳다는 점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사리논리적 담론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규범적 가치 표현이다. 일반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문제에서는 보통 옳고 그름의 사리판단이 '공적 정의(公的 正義)'의 차원에서 부각되고 강조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동료관계에서는 정(情)이나 심정(心情), 의리(義理) 등과 같은 정리(情理)적 판단이 사적 의리(私的 義理)의 차원에서 더 높은 가치로 옹호된다(최상진, 1993; 1994; 1997b; 최상진, 김기범, 1999; 최상진, 유승엽, 1996; 최상진, 최수향, 1990).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회적 공론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正義)'의 차원의 판단과 사리담론 양식이 사회적으로 규범시 된다.

그러나 실제의 투표행동에서 나타나는 후보선택의 심리과정을 추론해보면 객관적 입장에서의 사리 판단에 따른 인물이나 정당선택보다는 학연, 지연과 같은 관계적 변수가 투표자의 선택 행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1998). 물론 이러한 관계중심적 사고와 판단이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특수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그 정도면에서 한국인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최상진, 1997b). 한국인에게 있어 관계중심적 사고와 판단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형태를 보면 이성적 사고나 판단의 과정에 심정(心情)이라는 '마음속의 관계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맥락에서 심정이란 말은 남남 관계가 아닌 '정(情)·우리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감정적 경험'을 일컫는다. 최상진 등(1996, 1997b, 1999)은 이러한 관계감정적 경험이 관여된 사고와,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관계감정적 경험이 관여되지 않은 사고의 두 가지 형태를 대비시켜 전자를 '심정논리적 사고', 후자를 '사리논리적 사고'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대비시킨 바 있다.

표 1. 심정논리와 사리논리

심정논리	사리논리
우리성 논리	개별자 상호작용 논리
사적 논리	공적 논리
마음의 교류 논리	이해관계의 교환논리
간주관성의 논리	객관성의 논리
정의 논리	이성의 논리

담론상황에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논리 중 어떤 것에 따른 언술(또는 담론)이 적합하다거나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발화된 언술이 관여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형태, 문제된 사안의 성격 등과 같

은 비교적 구체적인 담론논리 소여단서(所與端緖)와의 부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론과정에서 구성되어지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공구성적, 간주관적(間主觀的), 관계심리적 장(關係心理的 場)에 따라 적합성을 갖는 언술논리가 결정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담론의 대상으로 떠오른 후보자들의 지역연고와 더불어 담론 관여자들 자신의 지역연고간의 일치성 여부 지각 등과 같은 구체적 담론논리 소여단서에 따라 적절한 담론의 논리양식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구체적 담론논리 소여단서와는 별도로 또는 무관하게 담론의 과정 속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의 관계 및 기대 - 공감단서 탐지를 통해 담론관여 당사자들간에 공구성된 간주관적 심리 및 대화맥락에 따라 담론의 논리양식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담론 당사자들이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합치된다는 것을 탐지하는 순간 대화의 형태를 정리논리 담론형태로 이끌어가는 경우나 또는 서로가 동일연고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공지(共知)하고 있으나,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대화의 형태를 사리논리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자신의 지연 또는 학연과 연계되어 특정한 후보를 선호하는 사람이 상대의 연고나 선호후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담론할 경우, 특히 담론상대와 자신의 고향이 다르며 동시에 이들의 고향이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들의 고향과 일치할 경우 담론의 양식은 불가피하게 사리논리 담론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리논리적 담론과정에서 관여 또는 작동되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동기기제를 살펴보면, 서로 상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동기보다는 기존의 자기 생각을 사리논리적 레토릭이나 형식을 빌려 정당화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상대로부터 승인받으려는 동기와 전략이 합리적 판단동기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담론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태도가 명백히 설정되어 있거나, 특정 후보와의 동일 지역연고에 의해 특정 후보에 대해 정서적으로 깊이 관여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담론의 형태를 보면, 비록 형식 논리적으로는 객관성과 논리성을 기저로 한 사리논리를 따르나, 그 속내를 보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또는 상대후보의 단점을 노출하는 방향으로 사리논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언술자의 주장과 논리가 질서정연하고 일견 타당하다고 해서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흔히 나타나는 상대의 반응은 "그래, 네 말에도 일리는 있어, 그러나…"의 형태로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 담론의 일반적 형태이다. 이는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이해하는(understanding)' 과정과 상담자의 말을 '수용하는(accepting)'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나, 또는 McGuire(1969)의 태도변화이론에서 설득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메시지의 '수용'이 별개의 과정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선거와 관련된 공론형식의 사회적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사리논리적 담론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적 특징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리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반면, '사회적 정의나 공공적 이해관계'에 자신의 논리적 귀결을 근거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질서 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언술논리에 접해서 나타나는 선차적(先次的) 반응인 "그래, 네 말에도 일리는 있어"라는 언술자의 언술에 포함된 공적 사리논리에 대한 수용이며, 후차적(後次的)

반응인 "그렇지만…"은 언술자가 언급하지 않은 '사적 정리논리(私的情理論理)'에서 볼 때 그 언술의 귀결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언술자의 태도나 본심을 가늠하는 징표로서 선거관련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사리논리적 언술은 언술자의 본심 또는 본태도와 관련하여 과연 믿을 만한 단서인가의 질문은 선거 여론조사나 투표행태에 대한 이해 및 예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전 선지(先知)사항이 된다. 선거에 관한 언론의 기사나 지식인의 교도-계몽적 사설형태의 글 속에서는 일관성있게 유권자들의 공적인 사리논리적 판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적논리양식은 심지어 일반인들의 선거관련 사회적 담론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견 한국인들의 투표행동이 서구에서와 같이 사리논리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선택행동에 준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론을 유도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투표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성있게 '연고주의', '지역주의', '우리편 중심주의'라는 '사적 정리논리(私的 情理論理)'가 투표자의 후보선택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상진, 1997b; 최상진, 유승엽, 1996).

이러한 외현적 '언(言)-행(行)간', '언(言)-태도(態度)간'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담론양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왜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 가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대화의 상대가 '우리편'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편 밖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하는 정도가 다르다(최상진, 1997b). 예컨대,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를 우리편이라고 공감하고 또한 이를 공지(共知)할 때 대화의 논리는 정리논리 또는 심정논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규범시된다. 한국인에게 있어 정리논리적 언술은 속마음을 주고 받는 관계, 일체감의 전제, 마음이 통하는 관계, 인간적 관계의 논리를 함축하며, 따라서 가까운 관계에서 정리논리적 대화는 그 형식자체가 가까움을 공확인(共確認)하고 공보강(共補强)하는 심리적 매개이며 관계적 장르가 된다.

그러나, 우리편 밖의 상대편 사람과의 대화에서나 또는 일반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서는 사리논리의 형식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규범시된다. 여기서 사리논리적 언술은 사안에 대한 분석적 사고, 합리적 태도, 이성적 행동의 논리를 그 속에 함축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리논리적 대화는 '관계맺음과 관계맺음속의 대화'라 한다면, 사리논리적 대화는 '사상(事象)·사건(事件)과 관계된 일지향적, 일처리과정속의 대화'라고 특성지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지향적(指向的) 관심'은 사회적 대화상황에서 똑같이 중요시되는 관심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투표행동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속마음'은 일지향적 관심보다는 관계지향적 관심쪽에 기울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한국인의 일반사회적 대화가 사리논리적 담론양식에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관심지향이 이중적(二重的)임을 시사한다. 즉 가까운 우리성 관계 집단속에서는 속마음을 터놓는 관계지향적 관심이 우세하게 작용하나, 남남관계나 또는 비교적 가까운 관계속에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일지향적 대화논리를 자신의 속마음 표출형태로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속마음 표출상태'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마음관'과 관련해 두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그 하나는, 한국인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속마음과 겉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나 담론상황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할 때 자신에 대한 상대의 호감이 증진되거나, 속마음 표출 그 자체가 우리성 내집단 성원으로 의식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일반적 지향이 우리성 내집단을 만드는데 있다(최상진, 1997b)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적 담론양식 즉 자신의 속마음을 정리논리로 표출하기 어려운 관계상황에서 사리논리적 communication 양식을 빌어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하거나 진짜가 아닌 가짜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인 것처럼 드러내놓은 언행양식은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수긍이 가는 현상이다. 여기서 '진짜가 아닌 가짜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리논리로 언술하는 데 대한 상대의 불신'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례.
지난 번 14대 대선 때 경남사람인 '갑'과 호남사람인 '을'이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를 놓고 인물평을 하고 있었다. 갑은 사리논리적 언술구성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듣던 호남인 을은 이 말에 찬동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함), 이와는 달리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해도 찍기는 김영삼을 찍을거야, 솔직히 말해요"라고 반응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갑이 말한 것, 즉 '사리적 담론양식을 빌은 속마음 표현'이 갑의 진짜 본마음이 아니라고 을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갑이 정말 거짓말을 했다면 그 본 뜻은 을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해 을의 기대나 뜻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관찰이다. 이를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갑의 말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사리논리의 형식을 갖춘 '의례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례적'이란 말은 '의식성(儀式性)'과 '예절성(禮節性)'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의 형식을 뜻한다(최상진, 유승엽, 1994). 격식관계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에서 한국인들은 본인의 생각과 뜻을 진실하게 전하는 일 못지않게, 의사소통의 사회관계적 맥락에 따라 상대의 뜻에 따르는 말형식(의식성)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예절의 표현형태(예절성)로 상대의 생각을 그 내용과 관계없이 존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례적인 말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관계지향적 관심에 따른 상황적인 말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인들은 상대의 말을 내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상대의 자신에 대한 관계관심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앞의 실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을의 언행 즉 '그 말은 못믿겠다'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의례적인 관행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선거와 관련되어 오고가는 대화나 담론에서 의례적인 말과 본심을 구분하는 일은 선거결과를 예측하려는 조사기관이나, 선거전략을 짜는 정당관계자들에게는 물론 한국인의 선거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화하려는 학자들에게 공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리논리적 언술양식은 제3자끼리의 대화형식으로 언술자의 실제 속마음보다는 상대와의 관계유지나 자신의 이미지고양에 관심을 둔 communication양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일반적으로 정리논리적 언술양식은 우리성 · 정집단속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리논리적 언술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진태도(眞態度)를 특별한 자의식없이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국인의 지역연고주의는 '출신지역이 똑같다'는 그 자체로 선거의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지역연고와 연계된 한국인의 '우리편 의식' 즉 '우리성'이라는 심리적 매개과정을 통해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네 번째 명제와 관련하여 우리편 후보 및 상대편 후보에 대한 세부적 이미지 형성에, 예컨대

직무수행능력, 판단력, 인품 등과 같은 각 종 대인지각 관련 변수에 구성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한국인의 '우리성 대인쉐마' 및 '우리성 심리과정'을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성쉐마를 논하기 전에, 이미 서구의 심리학에도 내집단 구성원이 되는 순간 자기 집단의 성원에 대해 긍정적 인물평가지각이 사실과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내집단 편향성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우리성이라는 인식은 내집단편향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한국인들은 어떤 구성원이 '우리편집단'에 일단 신입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전제로' 행동하고, 또한 이를 지향한 행동과 태도를 격려하고 규범시한다.

그 대표적 예가 집단의 '의리'행동이며, 집단의 리심이 발동하면 동질성을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적 사실관의 경계가 약해지고, 더 나아가 이상적 동기가 현실인식동기보다 우세하게 작용하여 현실지각이 의리동기의 방향으로 구성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지난 대선과 관련해 도출될 수 있는 하위 명제는 다음과 같다. 즉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영호남 출신후보간의 반복된 경쟁은 두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편' 대(對) '상대편'이라는 두 지역간 '대(對)' 의식을 조장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의식은 자기지역집단을 '우리성' 집단으로 공의식(共意識), 공확인(共確認)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출명제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와 가설을 탐색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한국인의 후보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예언준거는 무엇인가?

연구가설 1. 후보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예언준거는;

1) 후보간에 상호 대치(對峙) 또는 대적(對敵)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이들 후보의 지역연고에 따라 유권자들이 집단의식의 형태로 자기 지역 후보를 '우리편' 후보로, 상대지역 후보를 '상대편' 후보로 느낄 경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준거변수는 '우리성'이다.

연구문제 2: 15대 대선에서 상호대치 또는 대적관계에서 경쟁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지역연고에 따른 후보자들의 '우리성 의식강도'는 어느 쪽이 더 높았으며, 결과적 으로 이것이 어떻게 자기지역연고 후보자의 속성평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가설 2. 김대중 후보는 그 동안 지난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의 낙선에 대한 호남인의 감정적 관여에 따른 패배의식이 작용하여 높은 지역우리성의식이 호남인들에게 공유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충남 연고를 가진 이회창 후보는 다른 출마자인 이인제 후보와 동일한 충남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연고에 따른 우리성에서 이회창 후보는 반감효과(半減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1) 김대중 후보에 대한 호남인의 높은 지역우리성의식이 호남인의 김대중 후보의 인물속성 평가에서 높은 긍정성 편향 지각을 나타내는 반면, 이회창 후보에 대한 충남인의 낮은 지역우리성 지각이 충남인의 이회창 후보의 인물속성 평가에서 낮은 긍정성 편향지각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3. 선거여론조사에서 지역연고와 관련된 심리적 변수인 우리성을 묻는 질문문항을 어떤 형태로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3과 관련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질문방식을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느껴지는 후보는 누구인가?'로써 이 질문은 질문에 접했을 때 흔히 응답자의 마음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자아의식이나 평가민감성을 줄이기 위해 '속담형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다. 이러한 속담형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는 질문들은 흔히 응답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나 반성적 사고과정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즉각적이며 종합적인 판단만을 점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편으로 느껴지는 후보는 누구인가?'로써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우리편의식을 인지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정을 주고싶은 후보는 누구인가?'로 이 질문은 우리성의 정서적 내용인 정에 준해서 우리성의 강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끝으로 '나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후보는 누구인가?'로 이 질문은 앞의 세 번째 질문이 친밀인간관계의 정서적 속성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인간관계적 포괄정서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모두 우리성의식을 정리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합할 때 '정리적 우리성 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경제성과 효과성에서 어떤 질문이 더욱 적합한가를 변별적으로 평가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 및 실시

서울, 경기 소재 남, 여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293명(남자; 140명, 여자; 15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는 1997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전국의 유권자들(n=1,511)을 무작위 표본추출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통해 연구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처리를 위해 SPSS PC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교차분석, t검증, 판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문제 3과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질문방식을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느껴지는 후보는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편으로 느껴지는 후보는 누구인가?'로써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우리편의식을 인지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정을 주고싶은 후보는 누구인가?'로 이 질문은 우리성의 정서적 내용인 정에 준해서 우리성의 강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정서에 가장 잘맞는 후보는 누구인가?'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전 체	성 별		고 향					
		남자	여자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기타
빈 도	293	140	153	139	51	33	31	32	7
비율(%)	100.0	47.8	52.2	47.4	17.4	13.3	10.6	10.9	2.4

투표 행동시 유권자에게 지지 후보를 직접 질문하면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편, 정, 정서에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중성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은 지표가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편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편이 생기면 경쟁관계가 유발되며, 우리편·상대편 차원 관여상에서 우리편은 긍정적 고관여 차원이다. 1:1 경쟁에서는 지역 감정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데, 지난 번 선거는 영남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영호남의 1:1 경쟁이 아니어서 지역정서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느껴지는, 즉 정서가 일치하고 호감도가 있는 후보자로 김대중(35.2%), 이인제(24.9%), 조순(18.4%), 이회창(13.7%) 순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극명하다(한국갤럽, 1998, pp.172-173, 표 2 참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 서울과 전라지역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이인제 후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회창 후보의 경우 경상도와 강원/제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지역연고에 의한 우리편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편 후보로 김대중, 이인제, 조순, 이회창 후보 순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지역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경기 지역에서는 이인제 후보를 우리편으로 생각한다(한국갤럽, 1998, pp.172-173, 표 3 참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반응률이 높고 서울, 전라, 강원/제주지역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이인제 후보의 경우 경기, 경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

표 2.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느껴지는 후보

	전 체	성 별		본 인 고 향						14대 대선시 가족들의 지지당	
		남자	여자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Base for %	293	140	153	139	51	33	31	32	7	170	117
이회창…	13.7	12.1	15.0	12.2	15.7	30.3		9.4	28.6	17.1	8.5
김대중…	35.2	37.9	32.7	39.6	19.6	18.2	77.4	18.8	28.6	20.6	57.3
김종필…	5.8	6.4	5.2	7.2	2.0	3.0		15.6		7.6	3.4
조 순…	18.4	11.4	24.8	20.9	15.7	18.2	6.5	21.9	28.6	22.4	12.0
이인제…	24.9	29.3	20.9	18.0	47.1	27.3	16.1	28.1	14.3	30.6	16.2
무응답…	2.0	2.9	1.3	2.2		3.0		6.3		1.8	2.6

표 3. 우리편으로 생각되는 후보

	전 체	성 별		본 인 고 향						14대 대선시 가족들의 지지당	
		남자	여자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Base for %	293	140	153	139	51	33	31	32	7	170	117
이회창…	15.7	15.0	16.3	17.3	17.6	24.2		15.6		22.4	6.8
김대중…	39.9	47.9	32.7	43.2	23.5	18.2	90.3	25.0	42.9	20.6	68.4
김종필…	4.8	3.6	5.9	5.0		3.0		18.8		5.3	4.3
조 순…	16.4	8.6	23.5	16.5	17.6	15.2	6.5	21.9	28.6	21.8	8.5
이인제…	21.8	23.6	20.3	15.8	41.2	36.4	3.2	18.8	28.6	28.8	10.3
무응답…	1.4	1.4	1.3	2.2		3.0				1.2	1.7

이고 있다. 이 또한 지역정서 및 지역연고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情) 측면에서, 김대중 후보는 전라지역에서, 조순 후보는 충청지역에서 정을 주고 싶다는 비율이 높다(표 4 참고). 이회창 후보는 정을 느끼지 못하며, 충청지역에서 조순 후보 인기가 높아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조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김대중 후보의 경우 전라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정을 주고 싶은 후보로 꼽혔다.

자신의 정서(감정)에 잘 맞는 사람으로는 김대중, 조순, 이인제, 이회창 후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라지역에서 김대중 후보가 높다. 또한 14대 대선시 가족이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조순, 이인제 후보가, 가족이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김대중 후보가 정서에 맞는다(표 5 참고). 즉, 유권자들은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김대중 후보의 경우 유달리 경상지역에서 반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 후보자들 중 김대중 후보는 지역연고와 지역정서라는 우리 편의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후보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회창 후보는 지역적 특색이나 연고가 후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세 후보(김대중, 이회창, 이인제)에 대한 지지자들의 세 후보의 신언서판(身言書判)에 대한 평가와 국정수행능력(경제문제 해결, 외교/국방문제) 및 정서측면에 대한 견해(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우리편으로 느껴지는 사람, 고향/지역에 도움이 될 사람)에 대한 12월의 조사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지도자나 고급관리의 인물평가에 전통

표 4. 가장 정을 주고 싶은 후보

	전 체	성 별		본 인 고 향						14대 대선시 가족들의 지지당	
		남자	여자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Base for %	293	140	153	139	51	33	31	32	7	170	117
이회창…	13.0	13.6	12.4	12.9	15.7	15.2	3.2	15.6	14.3	18.8	5.1
김대중…	35.8	39.3	32.7	35.3	21.6	27.3	83.9	25.0	28.6	18.8	61.5
김종필…	5.1	5.0	5.2	6.5	5.9	3.0		6.3		5.9	3.4
조 순…	26.6	20.0	32.7	25.9	27.5	27.3	6.5	43.8	42.9	34.1	15.4
이인제…	18.4	20.7	16.3	18.0	29.4	24.2	6.5	9.4	14.3	21.2	13.7
무응답…	1.0	1.4	.7	1.4		3.0				1.2	.9

표 5. 정서에 가장 잘 맞는 후보

	전 체	성 별		본 인 고 향						14대 대선시 가족들의 지지당	
		남자	여자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Base for %	293	140	153	139	51	33	31	32	7	170	117
이회창…	16.4	15.0	17.6	19.4	19.6	18.2		12.5	14.3	21.2	9.4
김대중…	33.4	39.3	28.1	36.7	23.5	12.1	67.7	21.9	42.9	18.8	55.6
김종필…	1.0	.7	1.3	2.2						1.8	
조 순…	25.6	17.9	32.7	23.0	27.5	30.3	22.6	31.3	28.6	29.4	19.7
이인제…	23.5	27.1	20.3	18.7	29.4	39.4	9.7	34.4	14.3	28.8	15.4

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평가준거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오늘날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사람을 선발하거나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러하였다. 당나라 선거지라는 책에 보면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신수(몸가짐의 의젓함)·말씨(말씨의 바름)·문필(글씨의 단정함)·판단력(사리판단)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관리를 등용하였다고 한다. 즉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도 성적이려니와 건장하고 위풍당당한 외모와 청산유수같은 말솜씨,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 단아한 글씨, 사물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과 논리를 갖춘 인재라야 했고 이를 등용의 척도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 기준이 현재에도 적용되는지를 '신(身) - 인상이 좋은 사람', '언(言) - 말을 잘하는 사람', '서(書) - 지식이 많은 사람', '판(判)단력이 뛰어난 사람' 등 네 가지 측면을 통해 알아보았다. 김대중 후보는 '말을 잘하는 사람'(47.8%), '지식이 많은 사람'(45.5%),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35.8%) 등 세 측면에서 타 후보들보다 높게 지적되었다.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는 이인제 후보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김대중 후보 지지자의 경우, 네 측면 모두 60% 이상 김대중 후보를 지적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품성에 대해 타 후보지지자들보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기준; 50% 설정, 상하위 15% 증감수준). 김후보 지지자들은 특히 지식이 많다는 점에서 김후보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말솜씨', 이인제 후보는 '지식' 측면에서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국정수행능력, 즉 경제문제, 외교/국방, 지역감정 해소 측면의 후보자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역시 세 측면 모두 김대중 후보가 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각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 또한 김대중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역감정 해소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비슷한 지적률을 보였다.

정서측면에 대한 견해의 각 후보 지지자별 지적률을 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 사람에 대한 반응은 세 후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김대중 후보 지지자들 경우 김대중 후보를 우리편으로 느낀다고 반응한 것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고향 및 지역사회에 도움될 사람이라고 반응한 것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물론 각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우리편으로 생각하지만, 특히 김대중

표 6. 신언서판에 대한 평가-지지자 평가

	인상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이회창 지지자	56.1	38.8	62.8	69.2
김대중 지지자	62.0	74.4	85.1	81.4
이인제 지지자	73.2	50.0	31.4	63.5

주: 각 측면별 자신의 지지자 지적률(%)

표 7.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지지자 평가

	경제문제해결	외교/국방문제	지역감정해소
이회창 지지자	67.2	50.7	61.3
김대중 지지자	86.7	86.5	68.8
이인제 지지자	50.6	40.2	65.7

주: 각 측면별 자신의 지지자 지적률(%)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성향이 높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신언서판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수행능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역감정해소의 문제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 후보 지지자들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보다 조금 높게 평가했지만 비슷한 반응률을 보였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후보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예언준거와 관련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 후보에 대해 마음속으로 정해논 후보에 대한 예측준거로서 각 변인들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각 예측변인들의 상대적인 기여변량을 알 수 있다. 즉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대중 후보를 우리편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후보를 변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변인과 함께 예측변인으로서 81.9%의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다(14.5% 증가). 여러 가지의 예측변인 중 13개의 예측변인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이전 결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후보의 듬직성과 세계화와 문화적 번영을 이끌어갈 후보 예측변인이 첨가되었다.

집단의 센트로이드를 비교해보면, 함수 1에서 김대중 후보의 센트로이드는 -1.95이고 이회창 후보는 3.17, 이인제 후보는 1.26으로 함수 1(설명변량, 69%, 표 10 참조)은 김대중 후보를 나머지 두 후보와 구분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함수 2(설명변량, 31%)는 이인제 후보를 이회창 후보를 구분하는 함수가 된다. 그러므로 함수 1에서 김대중 후보의 경우 '우리편'의식과, '다홍치마' 및 '정' 변인이 다른

표 8. 정서측면에 대한 견해-지지자 평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 사람	우리편으로 느껴지는 사람	고향/지역 사회에 도움될 사람
이회창 지지자	81.8	65.1	53.2
김대중 지지자	87.1	80.2	71.8
이인제 지지자	75.9	67.6	53.5

주: 각 측면별 자신의 지지자 지적률(%)

표 9. 예측변인 투입결과 요약표

Step	Action Entered Removed	Vars in	Wilks' Lambda	Sig.	Label	eta^2
1	DJ9	1	.326**	.000	우리편	67.4%
2	HC5	2	.181**	.000	정서	81.9%
3	HC21	3	.128**	.000	듬직성	87.2%
4	IJ9	4	.102**	.000	우리편	89.8%
5	DJ11	5	.089**	.000	정	91.1%
6	IJ5	6	.081**	.000	정서	91.9%
7	HC6	7	.075**	.000	국정수행능력	92.5%
8	IJ6	8	.071**	.000	국정수행능력	92.9%
9	IJ18	9	.067**	.000	세계화	93.3%
10	HC10	10	.064**	.000	지역사회도움	93.6%
11	DJ7	11	.062**	.000	다홍치마	93.8%
12	HC17	13	.059**	.000	문화적번영	94.1%
13	IJ1	14	.057**	.000	외모	94.3%

* $p < .05$, ** $p < .01$ (cf. HC: 이회창, DJ: 김대중, IJ: 이인제)

두 후보를 구별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함수 2에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이회창 후보와의 차이는 김대중 후보와는 달리 국정수행능력, 세계화의 문제 등이 '정서'과 '우리편' 변인에 첨가되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정확분류비율은 약 93%였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 92%, 이회창 후보의 경우, 94%, 이인제 후보의 경우 93%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에 대한 변별은 두 차원의 판별함수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는데, 김대중 후보의 경우 '우리편', '정', '다홍치마'가 함수 1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 또한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반면에 함수 2에서는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후보를 우리편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보에 대한 정이나 정서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연고에 의한 후보자 판별은 유의하지 않은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문항 간 상관에서도 김대중 후보를 우리편으로 인식하는 것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신언서판(身言書判) 중 신(身, r=.27, p<.01)과 판(判, r=.23, 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다른 후보들은 이인제 후보의 판단력(r=.25, p<.05)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김후보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r=.34, p<.01), 김후보에 정이 가며(r=.33, p<.01), 김후보가 덕이 있고(r=.26, p<01), 사회안정을 도모하며(r=.25, p<01), 경제적 안정(r=.19, p<.05)을 도모하고 문화적 번영을 이끄는(r=.17, p<.05), 정서에 맞는 후보(r=.44, p<.05)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상대적

표 10. 각 변인별 판별함수분석결과

예측변인	단 계	단계별 Lambda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1	2
우리편	1	.326**	-.632	.307
정서	2	.181**	.389	.419
듬직성	3	.128**	.338	.383
우리편	4	.102**	.221	-.557
정	5	.089**	-.478	.246
정서	6	.081**	.160	-.538
국정수행능력	7	.075**	.278	.255
국정수행능력	8	.071**	.126	-.281
세계화	9	.067**	.066	-.290
지역사회도움	10	.064**	.231	.172
다홍치마	11	.062**	-.420	.194
문화적번영	12	.059**	.168	.175
외모	13	.057**	.027	-.344
Eigen값			4.695	2.096
설명변량			69.14	30.86
정준상관			.91	.83
람다값			.057	.323
사례의 정확분류비율: 92.86%				
BOX's M=1006.70(p=001)				

* p < .05, ** p < .01 (cf. HC: 이회창, DJ: 김대중, IJ: 이인제)

인 긍정성 편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이 후보를 우리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의 국정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41, p<.01), 이인제 후보의 경우, 이 후보를 우리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 후보에게 정이 가고(r=.41, p<.01), 듬직하며(r=.27, p<.05),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8, p<.01).

논 의

본 연구는 투표 행동을 할 때 후보자 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리논리적 언술양식은 우리성·정집단속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지역연고주의는 지역연고와 연계된 한국인의 '우리편 의식' 즉 '우리성'이라는 심리적 매개과정을 통해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후보 선택에 있어서 후보간에 지역연고에 따라 유권자들이 집단의식의 형태로 자기 지역 후보를 '우리편' 후보로 느낄 경우 그 후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대선에서 경쟁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지역연고에 따른 후보자들의 '우리성 의식강도'는 김대중 후보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기지역연고 후보자의 속성평가에 영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후보는 지역연고 및 지역정서에 의한 '우리성'의식이 다른 두 후보와 구분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으나,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구분하는데는 중요한 변인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지역연고와 관련된 심리적 변수인 우리성을 묻는 질문문항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느껴지는 후보', '우리편으로 느껴지는 후보', '내가 가장 정을 주고싶은 후보', '나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후보'에 관한 질문으로 이 네 가지 질문은 모두 우리성의식을 정리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리성의식을 정리논리적으로 묻는 문항(우리편, 정서, 정)들이 후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분석은 실시하지 못했음을 제한점으로 두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우리편의식은 어느 정도 본 연구자들의 예측과 일치했으나, 이회창 후보나 이인제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지역연고에 의한 우리편의식을 어떤 후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후의 선거에서 이러한 예측변인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최상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집, 69-78.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5-21.

최상진(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337.

최상진(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131-143.

최상진(1997b).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 심리학의 이해 (pp.695-766). 서울: 학문사.

최상진·김기범(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 (인쇄중).

최상진 · 박희랑 · 박무익(1997). 한국 대학생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611-626.

최상진 · 유승엽(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69-385.

최상진 ·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발표논문집, 377-388.

최상진 · 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집, 1-9.

한국갤럽(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서울: 한국갤럽.

Choi, S. C.(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McGuire, W. J.(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and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 3. 2nd Ed.) (pp.136-314). Reading, MA: Addison-Wesley.

韓國心理學會誌: 社會問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1999, Vol. 5, No. 2, 141~155

Exploration of Parameters in Choosing a Candidate for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97

Sang-Chin Choi[1], Hee-Rang Park[1], & Mu-Ik Park[2]

[1]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2]Korea Gallup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rameters for choosing a candidate for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1997. A total of 293 undergraduate students(male: 140, female: 153)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Until now, in general, some researches and theories for voting behavior have tried to adopt a rational-cognitive model and attitude measurement along with this model in choosing and buying a good. However, the present authors thought that these models were suitable only for preference of objects and events, and not sufficient for analysis of voting behavior and evaluation of impression which are highly involved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Therefore, we suggested a new model, i.e., logics of Cheong, as a predicts for voting behavior. Then, we analyzed the tendency of voting behavior in terms of this model for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